

韓國古地圖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Korean Old Maps

金 元 翼* 黃 奏 淵**
Kim Won-ik Hwang Ju-yeon

要 旨

우리나라의 地圖製作歷史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發掘된 地圖나 文獻의 수가 얼마 안되고 또 이에 대한 研究가 未洽하여 當代의 技術水準과 內容뿐만 아니라 製作時期, 動機 및 製作者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 研究의 目的은 현재 가능한 文獻 및 資料를 蒐集分析하여 우리나라의 地圖製作體系를 究明하고 各地圖의 特性을 調査하여 앞으로의 古地圖研究의 方向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Abstract

It is known that the Korea has a long history in map production. On the contrary, a few literatures and materials of the ancient maps are available by the time being and there is something yet to study more. Therefore, it is not often discover the publishing date, technical standard of the ancient maps, and et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the old maps and is also to show the guideline of the study in future.

1. 序 論

人類의 地圖製作史는 文字를 가진 歷史時代보다 앞선다. 文字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古代人들이 動物의 가죽, 조개껍질, 나무껍질, 돌 등에 그들의 生活周邊에 대하여 삶에 필요한 여러가지 內容을 그린 것이 地圖製作의 起原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地圖製作이 되었는지 이에 관한 記錄이 거의 없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古代國家로서 體制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三國時代에 들어와서 租稅徵收, 土地制度에 의한 耕地의 區劃, 國防의 目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地圖製作의 必要性이 擡頭되었을 것이라고 思料된다.

高麗時代에는 地圖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地

圖製作技法의 發達로 高麗末에는 現在의 우리나라 地圖와 類似한 形態의 地圖가 完成되었다.

朝鮮王朝 建國後 最大의 課題는 倭寇와 女眞의 侵入에 대한 對備였다. 따라서 그들의 來侵 經路와 本據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新地圖의 製作이 要求되고, 太宗 2年 混一疆理 歷代國都之圖라는 滿州와 日本을 包含한 地圖가 製作되었다.

中國을 통한 科學技術과 地理的知識의 傳來는 우리나라 地圖製作分野에 劃期的인 發展契機를 提供하였으니, 印地儀 및 記里鼓車 등의 發明과 이를 이용한 實測地圖의 製作이다.

그러나 壬辰倭亂, 丙子胡亂 등의 戰亂으로 地圖製作 의욕이 한때 상실되었으나, 利瑪竇, 艾儒略 등의 宣教師에 의하여 製作된 世界地圖의 傳來와 英祖때 實學思想의 發達로 地圖製作은 新紀元을 이루었으며, 이와같은 結果는 古山子 金正浩에 의해 製作된 青邱圖, 大東輿地圖 등으로 그 絕頂期를 맞이하였다.

* 國立地理院測地課長

** 前 國立地理院長

2. 古代 地圖

高句麗는 地理的으로 中國과 近接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中國을 통하여 地理的知識의 傳來가 있었으며 이러한 學門의 傳來와 領土의 擴張은 國土에 대한 記錄과 地圖製作의 可能性을 示唆해 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榮留王 11年(628)에 唐太宗에게 封域圖라는 地圖를 보냈다는 記錄이 있다.¹⁾ 그러나 그 地圖의 內容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大略的으로 推測하건대 高句麗疆域에 대한 繪畫式地圖였을 것이다.

解放後 發見된 高句麗 壁畫에 그려진 地圖를 통해 그 당시의 地圖를 考察해 보면, 이 地圖에는 遼東城 內外의 構造와 施設, 道路, 城壁과 建物이 그려져 있으며, 河川, 山, 道路를 赤, 靑, 紫色 등을 써서 繪畫式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그림地圖의 形式이 이미 4世紀頃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²⁾

百濟도 武王때 曆, 天文, 地理에 관한 書籍을 日本에 紹介했다고 日本書記에 記錄되어 있고, 三國遺事 卷二 南扶餘條에 「其時圖籍之內 有餘州二字 林州 今佳林郡也 餘州 今之扶餘部也 百濟地理志曰 後漢書曰 三韓凡七十八國」이라는 記錄이 있다. 이 記錄에서 圖籍이란 그 內容으로 보아 地圖를 意味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三國遺事 執筆시 百濟地理志를 引用한 事例를 통해 百濟의 地圖製作 可能性을 엿볼 수 있다.

新羅에 있어서도 三國史記地理志에 「新羅疆界 古傳不同」이라는 記錄에서 古傳은 歷史記錄으로 地理關係 內容이 收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眞興王(540~576) 당시 領土內 여러곳에 國境을 나타내기 위한 巡狩碑를 세웠던 점이나, 古山子 金正浩의 靑邱圖에 挿入되어 있는 新羅九州郡縣總圖가 原本에 의하여 옮겨졌는지 혹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に 나타난 新羅地名을 基礎로 하여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이와같은 內容의 考察을 통해서 新羅에도 高句麗의 封域圖와 같은 地圖가 있었을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다.

3. 高麗時代의 地圖

中央集權制의 封建的 國家로서 新羅의 찬란한 文化를 繼承發展시킨 高麗에 있어서도 政治, 軍事, 財政 등의 目的으로 地圖를 製作하였을 것이다. 高麗時代 地圖에 관해서는 記錄도 상당히 있고 그 地圖의 形態를 推想할 수 있는 古地圖가 남아 있으므로 어느 정도 그 內容을 헤아려 볼 수 있다.

高麗史에 의하면 成宗 14年(995)에 비로서 10道를 두었고 그로부터 17年後인 穆宗 5年(1002) 契丹에 使臣을 보내서 高麗地圖를 보낸 것을 보면 全國을 10道로 分割한후 곧 地圖를 製作한 듯하다. 또한 顯宗 때(1010~1031) 全國을 10道에서 五道兩界로 改定하였으며, 毅宗 2年(1148)李深, 智之用 등이 宋나라에 高麗地圖를 보냈다고 한다. 이때 보낸 地圖가 五道兩界州縣總圖라고 推測할 수 있다.

또한 明代에 출판된 羅洪先의 廣輿圖에 실려 있는 朝鮮圖는 高麗時代 우리나라 地圖의 輪廓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羅洪先의 廣輿圖는 13世紀末에서 14世紀初에 만들어진 朱思本의 輿地圖를 地圖帖으로 만든 것으로 여기에 실려 있는 朝鮮圖는 13世紀 이전에 高麗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地圖의 寫本으로 생각된다.⁴⁾

高麗末의 地圖製作은 實測에 의한 것으로 推測되는데 왜냐하면 朝鮮王朝가 建國된지 불과 10年後에 製作된 李薈의 八道地圖가 實測에 의하여 製作되었을리 없음이 明白한데도 그 正確性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高麗時代의 地圖는 記錄만 남아있을 뿐 現存하는 地圖가 없어 다만 李朝初期의 地圖를 통해서 그 大略的인 面을 推測할 수 있다.

4. 朝鮮時代의 地圖

(1) 李薈의 八道地圖

朝鮮王朝 建國後의 當面課題는 內治의 整頓과 外侵에 대한 對備였다. 外寇와 野人의 빈번한 侵略 때문에 그들의 來侵經路와 本據地를 일목요

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滿州와 日本을 포함한 新地圖의 製作이 要求되었다. 正統 元年(1399)에 金士衡이 明나라에서 李澤民이 만든 聲教廣被圖라는 世界地圖과 太宗 元年(1401) 朴敦之가 日本에서 新製日本圖를 얻어가지고 온데는 그와 같은 理由가 있었던 것 같다.

太宗 2年(1402) 左政丞 金士衡과 右政丞 李茂는 李薈로 하여금 李澤民의 聲教廣被圖와 天台僧 清潛의 混一疆理圖의 兩地圖 및 李薈의 朝鮮地圖와 新製日本地圖를 합하여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世界地圖을 만들게 하였다. 이 地圖에는 年記와 地圖製作의 事情을 알 수 있는 跋文이 記載되어 있는데, 陽村 權近은 그 跋文에서 「建文四年夏 左政丞上洛金公 丹陽李公變理之暇參空是圖 命檢詳 李薈更加詳校 合爲一圖 其遼水以東及本國疆域 澤民地圖亦多闕略兮 特增廣本國地圖而附 以日本勒成新圖 井然可觀 誠可以不出戶而知 天下也 夫觀圖籍而知地域之邇遐爲治日助也」⁵⁾라고 記述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李薈의 八道圖 名稱은 朝鮮疆域澤民地圖이며, 朝鮮과 隣接한 女眞과 日本의 地理의 關係를 파악하여 外侵에 對備하기 위한 目的으로 地圖를 製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梁誠之의 上疏文에 「東國地圖 高麗中葉以上 有五道兩界圖 國初有李薈八道圖」라고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李薈는 太宗 2年(1402)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만들기 以前에 朝鮮八道總圖를 만든 것이 確實하며, 太宗 2年 議政府에서 本國地圖를 獻上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곧 李薈의 八道地圖라고 推測할 수 있다.

八道地圖는 현재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日本 龍谷大學에 所藏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朝鮮部分圖를 통하여 그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地形은 비교적 正確하며 山脈은 굴곡선을 사용한 獨自的인 方法으로 表示하고 있으나, 中國과 실제보다 近距離에 位置하고 있어 黃海가 內海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威鏡道 및 平安道の 東北端에 대한 實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곳의 地形은 매우 粗略하며, 威鏡道 東北端이 鴨綠江河口와 거의 同一緯度上에 놓여 있다.

그러나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朝鮮部分圖는 現存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地圖이며 이 地圖는 高麗時代의 五道兩界圖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推測되므로 高麗時代末에서 李朝初期까지의 古地圖 研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鄭陟의 八道圖

世祖朝에 이르러 政治의 基盤이 安定되고 여러 分野에서 創意的인 事業이 시작되었으며 地圖製作分野에서도 劃期的인 發展이 이루어졌다. 建國이래 變遷을 거듭하여 온 各道의 行政區域 정리와 기타 地理의 整備의 必要로 世宗 11年(1414) 11月 地誌의 編纂을 決定하여 世宗 14年(1422) 1月에 孟思誠, 權軫, 尹淮, 申嚮 등에 의하여 完成 獻進된 新撰八道地理志는 新地圖 作成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世宗 16年(1424) 4月 世宗實錄에 「威鏡道監司와 都節制使에게 傳旨하기를 本圖의 地圖를 여러 옛 文籍에서 詳考하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아 그림을 그려서 보내니 道內의 그림 잘 그리는 사람으로 그 그림을 옮겨 그리게 하여 監營에 간직하고, 또한 邊將들의 處所에도 나누어 보내라」라고 記錄되어 있다.

또한 建國이후 國境이 確定됨에 따라 威鏡道 및 平安道地域에 대한 관심이 增大하여 世宗 18年(1426) 2月에는 知承文院事 鄭陟에게 命하여 相地와 畫工을 인솔하여 威鏡道, 平安道, 黃海道 등의 山川形勢를 그려오게 하였다. 이와같은 地圖 製作事業의 結果가 鄭陟의 八道圖이다.

成宗 13年 南原君 梁誠之의 上疏文에 「國初有李薈八道圖 世宗朝 有鄭陟八道圖 兩界大圖小圖」라는 記錄이 있어 鄭陟의 八道圖는 李薈의 八道圖 이후의 朝鮮初期 地圖였음을 알 수 있다.

鄭陟의 八道圖와 李薈의 八道地圖와는 그 形態와 內容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傳本이 없어 알 수 없으나 平安道와 威鏡道の 東北部의 地形과 內容이 李薈의 八道圖보다 훨씬 正確할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다.

이무렵 距離 測定에 있어 科學的인 技法이 導入되었으니, 天文儀器의 一種인 簡儀제도와 距

離測定器具인 記里鼓車 등이다. 簡儀는 天體를 觀測하기 위한 器具로서 緯度測定에 사용할 수 있는 儀器이며, 記里鼓車는 世宗 23年 考案製作된 일종의 距離測定用 器具로서 10리마다 自動적으로 북을 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山險地에는 노끈으로 만든 步數尺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距離를 測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침내 世宗 32年(1450) 12月에는 步數尺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全國距離實測事業이 시작되었다.

(3) 梁誠之의 八道圖

成宗 13年 2月 南原君 梁誠之의 上疏文에 「國初 有李薈八道圖 世宗朝 有鄭陟八道圖 兩界大圖小圖 世宗朝 臣誠之撰進八道圖 閻延茂昌虞芮三邑圖」라고 되어 있어 世祖朝에 選進한 梁誠之의 八道圖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梁誠之는 世祖가 卽位하자 便宜 24條를 올렸고 그해 겨울에 平安道로 가서 地圖를 그려가지고 와서 八道圖製作의 資料를 갖추는 동시에 國防을 엄히할 것을 進言하였다.⁶⁾ 또한 世祖實錄에 의하면 梁誠之는 世祖 2年 3月에 八道の 山川, 阨塞, 道路의 遠近과 州鎮의 行政區域을 全體的으로 調査할 必要가 있으니 各 道の 州鎮에 指令을 내려서 이 일에 적극 協力해 달라는 上疏文을 올렸다.⁷⁾

世祖 3年 봄 京畿道の 調査를 마쳤고 8月以後에는 忠淸, 全羅, 慶尙, 江原, 咸鏡의 順으로 調査를 完了해 마침내 八道圖를 完成하였다. 그 完成時期에 대해서는 世祖 8年 5月 以前이었을 것으로 推測되나 正確한 時期는 알 수 없다. 梁誠之의 八道圖는 그 傳本이 없으므로 그 形態 및 內容이 어떤 정도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李薈의 八道圖나 鄭陟의 八道圖의 缺을 補했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수년간에 걸쳐 八道全域을 充分히 調査하였고 步數尺으로나마 實測에 의하여 製作된 地圖이니 만큼 朝鮮初期의 地圖로서는 가장 우수한 地圖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4) 鄭陟, 梁誠之의 東國地圖

世宗 16年부터 시작된 全國實測調査事業은 世祖代에 이르러 마침내 結實을 이루니 世祖 9年(1463) 11月에 製作된 鄭陟 梁誠之의 東國地圖이다. 世祖實錄에 의하면 世祖 元年(1455) 8月 集

賢殿 直提學에게 地理誌를 撰하고 地圖를 製作할 것을 命하여 이듬해 11月 鄭陟과 梁誠之의 이름으로 東國地圖를 바쳤다고 記錄되어 있다. 鄭陟과 梁誠之의 東國地圖型에 속하는 地區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의 朝鮮部分圖를 比較해보면 建國 이래 咸鏡道 및 平安道에 대한 實測調査로 인하여 보다 正確해졌으며, 交通路와 國都까지의 里程이 表示되는 등 人文에 대한 內容이 보다 풍부하게 收錄되어 있다.

朝鮮王朝의 歷代 國王중에서 世祖는 地圖의 必要性을 절감하고 그 製作에 대단한 關心을 보였다. 그가 世子로 있을 때 鄭麟趾에게 漢陽圖와 八道圖 및 州郡縣圖를 그려서 國家萬歲之寶로 삼을 것을 말하였고, 鄭陟과 梁誠之 등과 三角山에 올라가 漢陽圖를 手草하여 地圖製作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世祖의 이와같은 地圖製作에 대한 關心과 配慮는 地圖의 正確性을 기하기 위해 손수 印刷儀 一名 窺衡이라는 測量機를 만든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司諱 李陞은 그의 著書 靑坡劇談에서 印地儀에 대하여 「其法은 銅을 부어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二十四方位를 列位하고 그릇의 中央에 銅柱를 세우고 銅管을 걸쳐놓고서 그 銅管을 低昂하면서 窺視하는 것이니 이른바 窺衡이라는 것이다.」라고 記錄하고 있다. 印地儀는 世祖가 獨創的으로 製作하였는지 與否는 알 수 없으나 朝廷重臣이나 學者들 가운데 그 理致를 正確히 아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

世祖는 觀象監正 安孝禮의 지휘하에 印地儀를 사용하여 英陵을 測量케 하였으며, 世祖 13年 漢陽을 印地儀로 測量하여 端宗 2年 世祖자신이 手草한 바 있는 漢陽地圖를 完成하였다.

(5) 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

現存하는 李朝初期의 朝鮮全圖로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 插入된 八道總圖가 있다. 東國輿地勝覽은 世宗 6年(1424) 이래의 官撰地誌編纂事業의 結實이며, 成宗 12年에 完成되었다. 그 후 改輯增補에 의하여 李荇 등이 中宗 25年(1530) 新增東國輿地勝覽 55卷을 完成하였다. 東國輿地勝覽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編者인 徐居正

의 序文이 後에 改輯增補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 序文에 의하면 京都의 첫머리에 八道總圖, 各道의 처음에 道別圖를 添附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이 八道總圖는 東西의 幅이 南北의 길이에 비해 實際보다 誇張되어 있으며, 平安道 및 咸鏡道の 東北地域이 매우 粗略하다. 이 地圖는 梁誠之의 八道圖와 鄭陟, 梁誠之의 東國地圖 및 以前의 地圖를 總網羅하여 製作된 것이므로 李朝初期의 地圖製作事業의 結晶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現存하는 最古의 木版朝鮮全圖 및 八道各圖로서 古地圖研究의 귀중한 資料로 評價되고 있다.

그러나 八道總圖가 製作된 以後 壬辰倭亂, 丙子胡亂 등의 戰亂으로 인하여 鄭農圃의 八道圖가 製作되기까지 약 250年間은 地圖의 製作은 거의 중단 상태가 되었다.

(6) 鄭尙驥의 東國地圖

17世紀 이후 地圖에서 나타난 현저한 變化는 大縮尺地圖의 發達이다. 李朝初期의 地圖는 대부분 100萬分の 1 以下 小縮尺地圖인 반면 鄭尙驥의 東國地圖와 金正浩의 靑邱圖, 大東輿地圖 등은 모두 50萬分の 1 以上の 大縮尺地圖이다. 鄭尙驥(1678~1752)의 東國地圖로 불리는 地圖의 대부분은 鄭尙驥의 原本이 數代에 걸쳐 修正되어 온 것이다.

東國地圖는 全國圖와 道別圖로 되어 있으며, 道別圖는 各道 一枚를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咸鏡道는 南北各一枚로 되어 있고 京畿道와 忠淸道를 合하여 一枚로 되어 있다. 道別圖는 合하면 全國圖가 되도록 考案되어 있으며 咸鏡北道圖의 右側下部의 餘白을 이용하여 地圖를 만들게 된 動機와 百里尺이 실려 있다. 이 序文을 통하여 이전의 地圖가 대부분 縮尺의 概念이 없이 紙面의 廣狹에 따라 製作된 반면 이 地圖에서는 平坦한 곳에서는 100里를 1尺으로 山地 등에서는 120~130里를 1尺으로 하여 山地에서의 里數를 直線距離로 고쳐 地圖에 表示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地圖의 特徵으로는 100里를 나타내는 縮尺에 의하여 漢陽을 基點으로 全國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水陸交通路 및 沿海航路의 表示가 되어

있어 海圖로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推測된다.

(7) 金正浩의 靑邱圖 및 大東輿地圖

金正浩의 生涯

古山子 金正浩의 生涯는 물론 그의 家系나 子孫에 대해서 조차 현재까지 詳細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약간의 記錄과 口傳에 의하면, 字는 伯元, 號는 古山子, 本貫은 鰲山이며, 黃海道에서 出生하여 서울의 南大門밖(萬里峴) 혹은 西大門밖(孔德里)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는 當時의 碩學 惠岡 崔漢綺(1803~1877)와 莫逆한 親舊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純祖初期부터 高宗 때까지 生存하였다고 推測할 따름이다. 또한 그가 大東輿地圖를 完成하여 그 印本을 大院君에게 바쳤으나 國家의 機密을 漏泄할 憂慮가 있다는 嫌疑로 刻板은 불태워지고 그 自身도 投獄되어 獄死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大東輿地圖의 印本 및 轉寫本, 木板의 일부뿐 아니라 같은 運命에 처했을 靑邱圖의 轉寫本 등이 오늘날까지 잘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같은 說은 신빙성이 없다.

광우리 장사의 남편으로 全國을 두루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혹은 軍校에 다니는 집 사람으로 職業上 地圖의 必要性을 깨닫게 된 것이 地圖製作의 動機가 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도 있다. 그의 身分에 대하여는 異見이 있으나 惠岡 崔漢綺와의 交友關係, 著作物을 통하여 나타난 卓越한 識見 및 軍事, 租稅, 農事, 地方의 風俗 등 國家全般에 관한 高級資料가 일부 特定階層에 의해 獨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著作物에 詳細히 記錄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결코 그와같은 身分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思料된다. 그에 대한 記錄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그의 子孫도 몹시 零落한 듯 그들의 所在라든가 有無조차도 알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지체 높은 階層이나 부유한 家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推測할 수 있다.

靑邱圖

靑邱圖는 一名 靑邱線表圖라고 하며 純祖 34年(1834) 完成되었다. 첫卷에 崔漢綺의 序文과 凡例, 地圖式 등이 실려 있으며 乾坤 2冊中 乾

은 홀수의 層을 坤은 짝수의 層을 그려 上下卷을 함께 대조하여 볼 수 있도록 製作되어 있으며 靑邱圖의 附錄에는 東方諸國圖, 四郡三韓圖, 三國前圖와 上下 2面에 걸치는 新羅九州郡縣總圖, 高麗五道兩界州縣總圖 등의 歷史地圖과 本朝八道州縣總圖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本朝八道州縣總圖는 各州와 縣을 찾기위한 一種의 索引圖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索引圖는 地圖의 東西를 22版, 南北을 29層으로 나누고 있으며 每方은 經을 70里, 緯를 100里로 하였다. 靑邱圖에는 山川, 江海, 港灣, 道路를 비롯하여 都市, 縣邑, 鎭堡, 倉庫, 驛站, 烽燧 등이 記入되어 있고, 특히 郡縣에는 戶口, 田結, 穀物, 軍丁의 數字와 古跡地에는 간단한 說明이 되어 있다.

그뿐아니라 現代式 地圖冊과 같이 凡例와 附錄으로 軍國總目表라는 題目을 붙인 당시의 行政區域別 田畝, 民戶, 男女人口數, 軍保, 穀簿, 坊面, 距京 등의 表가 插入되어 있으며, 戶口, 田結, 穀總, 軍丁 등의 總計는 純祖 28年(1828)의 備國都錄에 의거하고 있다. 靑邱圖의 特徵은 現代式 大縮尺地形圖와 같이 일정한 크기로 區分되어 있으며 各片을 합하면 全圖가 되도록 하였으며, 行政區域 및 地名의 時代的 變遷을 概觀할 수 있는 歷史地圖가 附錄으로 插入되어 있다.

大東輿地圖

大東輿地圖는 哲宗 12年(1861) 初版이 發刊되고, 高宗 元年(1864) 再版이 發刊되었다. 大東輿地圖는 1936年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에서 奎章閣叢第2別冊大東輿地圖 索引部로 影印 刊行됨으로써 世上에 널리 流布되었다. 靑邱圖의 地理的인 面을 補完하여 使用에 편리하도록 分帖 折疊式으로 만들어 모두 22層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접어서 冊과 같이 되도록 하였으며, 第1帖에서 第22帖 까지를 이어 서로 맞추어 놓으면 疆域으로부터 濟州까지 하나의 合圖가 되며 每片을 가로 80里, 세로 120里가 되게 하였다. 地圖內部에는 縮尺을 나타내기 위한 方眼 表示는 없으나 道路表示線에 10里 간격으로 點을 찍어 讀圖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大東輿地圖에 收

錄된 內容은 靑邱圖와 같이 山川, 海島, 倉庫, 道路, 邑治, 港灣, 驛站 등이 詳細하게 記錄되어 있다.

靑邱圖와 大東輿地圖의 전체 輪廓을 同一縮尺의 現代地圖와 比較하여 보면, 西海岸과 南海岸은 別차이가 없으나 鴨綠江 上流地方 및 東海岸을 經진 부근은 現代의 地圖와 상당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며, 東北部 海岸線에서 靑邱圖는 大東輿地圖 보다 약 20km 정도 東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鴨綠江 上流의 中江鎭은 靑邱圖와 大東輿地圖 모두 現代의 地圖보다 약 80km 北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와같이 金正浩圖(靑邱圖, 大東輿地圖)와 現代地圖와의 比較를 통하여 큰 差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經緯度 및 里程實測의 資料가 地圖製作에 이용되었음을 間接的으로 示唆해 주고 있다. 金正浩는 大東輿地圖를 版刻하기 이전에 東輿圖를 手草하였으며 東輿圖의 基礎資料로서 輿圖備志를 활용하였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輿圖備志에는 每卷의 첫머리에 「藥誠 崔瑗煥 星玉甫 彙集, 鰲山 金正浩 伯元甫 圖編」라고 記載되어 있으며, 戶口, 田賦, 極高, 方位, 里程實測值 등의 內容이 詳細하게 收錄되어 있다.

이를 綜合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民戶

純宗 戊子 一百四十三萬三千

人口

純宗 戊子 六百八萬三千

田賦

純宗 戊子 一百四十三萬八千

極高

京都北極高 三十七度三十九分一十五秒 正宗辛亥命監臣金泳依 漢陽北極高度準 輿地圖經緯線量定 八道巡營極高及偏東西度

京都 中線

湖西公州牧 極高 三十六度 六分 偏京都西 九分

嶺南大邱府 極高 三十五度 二十一分 偏京都東 一度 三十九分

湖南全州府 極高 三十五度 十五分 偏京都西 九分

關東原州牧 極高 三十七度 六分 偏京都東 一度 三分

海西海州牧 極高 三十八度 十八分 偏京都西 一度 二十四分

關北咸興府 極高 四十五度 七分 偏京都東 一度

關西平壤府 極高 三十九度 三十三分 偏京都西 一度 十五分

北極高度는 肅宗 39年(1713) 淸나라 사람 何國柱가 曆官을 거느리고와서 漢陽의 北極高度를 實測하였으며 正祖 15, 16년에는 全國 334個 州縣에 대한 北極高度가 測定되었다. 그러나 金正浩圖와 現在地圖의 比較에서 緯度上의 差異보다 經度上의 差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經度를 測定하기 위한 正確한 時計가 없었으며 山岳地域의 東西距離 測定이 不正確한 때문에 기인하는 差異라고 思料된다.

金正浩圖의 製圖原理는 地圖類說에서 南北朝時代 晉나라 裴秀(224-271)의 制圖六體(分率, 準望, 道里, 高下, 方邪, 迂直) 原本을 引用하므로서 金正浩의 圖法이 裴秀의 六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靑邱圖의 凡例에

「正廟朝分命諸州圖形該地方以上於是經緯度線表或以八道分幅或以州縣分俵任意裁作鄭詰祚黃燁尹鏞之本最著焉」이라고 記錄되어있으며, 金正浩가 地圖製作 당시 사용하던 測量器, 刻版用 道具箱子 등은 金良善이 購入하여 所藏하고 있었으나 6. 25動亂으로 遺失되어 現在 남아 있지 않다. 이와같은 內容의 考察을 통하여 金正浩圖는 備邊司, 書雲觀 등에 所藏되어 있던 實測資料와 金正浩圖 이전에 製作된 鄭詰祚, 黃燁, 尹鏞 등의 實測地圖를 參考하여 製作되었을 것이라고 推測된다.

金正浩圖의 製作經緯를 밝혀줄 수 있는 資料들이 일부에서 發掘되고 있는데 그 內容을 보면, 輿圖備志에 「藥誠 崔理煥 星玉甫 彙集」이라고 記載된 것과 申楹의 大東方輿圖序에 「圖之不可闕明矣余當有意於我東輿圖如籌司奎閣之藏古家蟬蠹之餘廣蒐而證定參互厚本援○諸書合以衰輯因謀諸金君百源屬以成之指證口授數十年始成一部」라

고 記錄된 점을 통해 金正浩가 地圖를 製作할 당시 爲政者가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金正浩는 大東輿地圖의 第1帖 地圖類說에서 「細亂則由此而左折衝, 鋤強暴, 時平則以此而經邦國」이라는 方輿記要의 한 구절을 引用하므로서 地圖製作의 目的을 밝혔다. 즉 自身이 製作한 地圖가 軸事, 租稅, 農事 등의 一般政策이나 地方의 風俗을 살펴 經世治民을 위해 유익하게 活用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5. 結 論

地圖는 人類의 歷史와 불가분의 關係를 이루며 發展를 持續하여 왔다. 人間의 活動領域의 擴大 및 集團의 形成에 따라 軍事 및 一般政策 등 多様な 目的을 充足시키기 위해 地圖製作의 必要性은 增大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時代의 地圖製作 記錄이 남아 있으나 어떤 形態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高麗時代에는 契丹과 宋나라에 地圖를 보냈다는 記錄이 있으며, 高麗末에는 實測에 의한 地圖製作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形態에 가까운 地圖가 完成되었다.

李朝時代에는 高麗로부터 전해온 地圖와 中國으로부터 傳來된 科學技術과 西歐式世界地圖의 影響을 받아 地圖製作事業이 活發하게 進行되었다. 世宗 16年(1422) 北極高度를 測定하기 위한 簡儀가 製作되어 摩尼山, 白頭山, 漢拏山 등의 北極高度가 測定되었으며, 世宗 16年(1424)鄭陟이 里程實測을 시작하여 世宗 18年(1426) 八道圖를 完成하였다. 端宗 3年(1455) 본격적인 全國實測 調査事業이 시작되어 京畿道, 忠淸道, 全羅道의 實測調査가 이루어져 世祖代에 이르러 마침내 結實을 이루니 世祖 9年(1463)에 製作된 鄭陟, 梁誠之의 東國地圖이다. 肅宗 39年(1713) 淸나라의 何國柱가 曆官을 거느리고와서 漢陽의 北極高度를 測定하여 37度 39分 15秒라는 結果를 얻었으며, 正祖 15年, 16년에는 各道의 州縣에 이르기까지 北極高度가 測定되었다. 또한 이 時期에 鄭尙驥에 의해 100里尺縮尺 圖法에 의한 全國圖가 製作되었다.

그후 中國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傳來된 西洋의 科學文明과 新技術 등이 集大成되어 마침내 金正浩의 靑邱圖, 大東輿地圖의 完成으로 그 絶頂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古地圖에 대한 資料들은 끊임없이 계속된 戰亂으로 많은 禍를 입었으며 現在 남아있는 古地圖의 대부분이 朝鮮時代 이후의 것이고 그 形態가 多樣하고 製作年代와 製作者 未詳인 것이 많아 研究資料로 活用하는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現在 일부에서 古地圖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鼓舞의인 사실이나, 學界 및 有關機關의 보다 많은 關心과 配慮를 바탕으로 古地圖의 發掘과 이에 대한 再定立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註

- 1) 三國史記 卷 20 高句麗本記 8 榮留王 11年 條
- 2)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pp. 301
- 3) 三國史記 卷34-7 雜誌3-6, 地理1-4
- 4) 全相運 韓國科學技術史 pp. 302-303
- 5) 陽村集 卷2
- 7) 世祖實錄 卷9, 丁丑 10月 壬子 條
- 6) 世祖實錄 卷3 2年 3月 條

參 考 文 獻

- 金良善, 1972, 梅山國學散稿.
韓國圖書館研究會, 1977, 韓國古地圖.
全相運, 1975, 韓國科學技術史(改正版), 正音社
洪以燮, 1946, 朝鮮科學史, 正音社
洪以燮, 1964, “金正浩의 大東輿地圖,” 思想界.
建設部國立地理院, 1979, 韓國古地圖目錄.